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여성이주와 혼종 인식의 문제*

- <심청, 연꽃의 길>을 중심으로 -

황 국 명**

차 례

- | | |
|---------------------|---------------------|
| 1. 들머리 | 3. 동아시아 연대와 혼종의 레시피 |
| 2. 이주의 여성화와 인종전략 | 1) 성차권력의 내면화와 동아시아 |
| 1) 이주의 일차원성과 귀환 열망의 | 본질주의 |
| 부재 | 2) 언어의 서열과 문화의 복화술 |
| 2) 인종전략과 수평가족 | 3) 인종낙인과 혼종의 서열 |
| |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황석영의 <심청, 연꽃의 길>을 중심으로 여성이주의 특성, 인종과 혼종 인식의 문제 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주의 여성화로 인해 심청의 이동은 성적 노동에 포획된 일차원성을 띠며, 그녀는 귀환을 열망하지 않는다. 이름, 의복, 음식 등에 대한 심청의 선택적 부정

* 본 논문은 2009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 인제대학교 교수 · 한국문화와 문화전략연구소

은 동아시아와 서양을 ‘우리’와 ‘그들’로 대립시키는 인종전략이다. 이런 인종전략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심청, 연꽃의 길>은 동아시아 남녀가 서구 제국주의의 침탈을 같은 방식으로 경험한다고 가정하는데, 이 가정은 동아시아 근본주의에 이른다. 이와 연관되어, ‘피진 잉글리시’는 ‘엥터리’로 인식되며, 이런 부정적 인식은 언어적 서열을 강요하는 제국주의 시선과 내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 서양문화와의 혼종에 배타적이고 동아시아혼종에 관용적이지만, 이것이 세계체제에 대한 문명적 대안이 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주제어 : 동아시아 본질주의, 복화술, 수평가족, 언어적 서열, 이주의 여성화, 인종전략, 젠더시능, 혼종

1. 들머리

오늘날 종교, 문화, 민족, 지역, 국가, 주체 등이 끊임없이 동요하는 특수성의 범주로 여겨지듯, 노동력과 자원, 상품과 이미지, 기술과 정보의 교환에서도 지리적 다양성이 증대하고 있다. 월경(越境)의 초과현상과 함께 이주, 이산, 탈국경, 혼종, 다문화, 세계화 등의 용어들이 문학담론을 생산하는 핵심어로 작용함은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목도한 황석영 또한 ‘근대’ ‘트랜짓’ ‘난민’이라는 낱말을 주요 ‘화두’로 삼는다. 19세기에서 21세기 현재까지를 세계시장이 재편성되는 과정으로 파악한 그에게 20세기의 냉전구도도 세계시장체제의 연속이며, “19세기의 제국주의와 21세기의 신자유주의가 서로 연결”된다. 그래서 오늘의 ‘새로운 현상’인 ‘이동’을 주제로 한 <바리데기>도 <심청, 연꽃의 길>과 상통한다는 것이다.¹⁾

1) 황석영, 「황석영이 황석영을 말하다」(『작가세계』 제60호, 2004), 27쪽. 심진경·황

황석영에게 ‘이동’이나 ‘세계화’는 일련의 세계사적 현상과 과정을 지시하고 범주화하는 용어일 뿐 아니라 세계체제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지적 도구라 하겠다. 더구나 21세기의 세계화가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를 강화하고 국가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그 파괴적 효과를 비판한 점에서, 이들 용어는 황석영으로 하여금 전지구적 대안을 모색케 하는 정치적 유용성을 갖는다. 그러나 세계체제에 대한 황석영의 사유는 엄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뿐 아니라,²⁾ 그의 소설적 형상이 세계화에 저항할 문명적 대안으로 얼마나 유효한가도 따져볼 문제이다. 이에 본고는 <심청, 연꽃의 길>³⁾을 중심으로 여성이주자와 혼종에 대한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손님><바리데기>를 포함한, 이른바 동아시아 삼부작 가운데 <심청, 연꽃의 길>이 세계화, 이주, 혼종화 등의 화두를 가장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심청, 연꽃의 길>은 이미 상당한 학술적 조명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본고와 관련되는 해석을 들면, 자본주의 욕망체계에 대한 대안적 가치로 모성의 경험 제시, 동질화로부터 탈주하는 저항 주체, 본래적 자아의 회복, 혼혈아 등 소외된 주변부적 타자들에 대한 이타행 등이 있다.⁴⁾

석영 대답, 「한국문학은 살아 있다」(『창작과비평』 137호, 2007년 가을호), 251쪽. 작가 인터뷰, 「분쟁과 대립을 넘어 21세기의 생명수를 찾아서」, <바리데기>(창작과비평사, 2007/2009 초판 41쇄), 295,301쪽.

2) 90년대 이후 황석영은 다양한 매체와 지면을 통해 자신의 문학적 정치적 신념을 토로하였다. 그 답론의 주요 항목은 이른바 서도동기론, 동아시아 연대 혹은 모국론, 모성, 리얼리즘의 갱신, 제국주의론 등이다. 필자는 『손님』과 관련하여 리얼리즘에 관한 황석영의 주장을 검토한 바 있지만, 작품연구와 별개로 황석영의 답론에 대한 이론적 조명이 요청된다. 황국명, 「황석영 소설은 리얼리즘의 미래인가—<손님>론」, 『우리 소설론의 터무니』(세종출판사, 2005), 291-313쪽.

3) <심청, 연꽃의 길>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한국일보에 연재된 뒤 <심청>(문학동네, 2003) 상하 2권으로 출판되었다가 원제를 회복하고 일부를 수정한 뒤 단행본 <심청, 연꽃의 길>(문학동네, 2007 2판1쇄)로 출판되었다. 본고는 이 개정판을 대상으로 하고, 인용시 그 쪽수만 표시한다.

4) 류보선, 「모성의 시간, 혹은 모더니티의 거울」, <심청, 연꽃의 길> 해설, 685-690쪽. 문재원, 「황석영 <심청>의 근대성과 탈근대성」(『한국문학논총』 43집, 2006.

또 <심청, 연꽃의 길>은 대모신의 탄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자기찾기, 자민족중심주의를 벗어난 탈식민 의식, 즉 전략적 본질주의를 드러낸다고 이해된다.⁵⁾ 다른 한편, 전통적 모성에 대한 호소는 근대적 젠더정치의 수락이며, 남성의 관음증적 욕망이 투사되어 여성의 몸을 사물화, 상품화한다고 비판될 뿐 아니라,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한 심청은 철저히 근대적 주체라고 상반된 이해를 얻는다.⁶⁾ 이상의 해석들이 본고의 관심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게 열린 새로운 해석의 여지도 넓지 않다. 선행연구를 참조하면서, 본고는 구체적으로 여성이주의 특성, 동아시아 연대와 연관된 인종전략, 인종적 문화적 혼종에 대한 인식 등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⁷⁾

08), 365-366쪽. 박성창, 「문학·국경·세계화」(『세계의 문학』 127호, 2008년 봄호), 332-333쪽. 고인환,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전통 양식 전용 양상 연구」(『한민족문화연구』 26집, 2008), 188쪽.

5) 김경수, 「우리 소설의 확장방식에 대하여」(『동서문학』 252호, 2004년 봄호), 352-354쪽. 김미영,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9집, 9권 4호, 2005), 429-430쪽. 구수경, 「<심청전>의 창조적 변형과 구원의 서사」(『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9집, 12권 2호, 2008), 226-231쪽. 임기현, 『황석영 소설의 탈식민성』(역락, 2010), 302-305, 397-398쪽.

6) 정문순, 「포주의 시선에 포획된 여성의 몸」(『비평과 전망』 8호, 2004년 봄호), 299-314쪽. 박숙자, 「여성의 몸을 탐하는 남성의 서사」(『여성과 사회』 16집, 2005), 223-224쪽. 정혜경, 「여성수난사 이야기와 탈(脫)국경의 상상력」(『문학수첩』, 2007년 여름호), 63-64쪽. 심진경, 「새로운 거짓말과 진부한 거짓말」(『실천문학』, 2006년 겨울호), 150-151쪽. 최영석, 「강신(降神)과 축귀(逐鬼)—동아시아의 서사화」(『작가세계』, 2004년 봄호), 84-85쪽.

7) 이 논문은 제38회 한국현대소설학회 학술대회(2011.05.28.)에서 발표된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여성이주와 혼종 문제」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세밀하게 읽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신 토론자 장현숙 교수께 감사드린다.

2. 이주의 여성화와 인종전략

1) 이주의 일차원성과 귀환 열망의 부재

은자 삼백 냥에 팔려가는 심청의 이주는 가난을 근본 동기로 한다. 심청이 조우하는 여성인물들도 가난이라는 죄를 대속하듯이 시골에서 도시로, 가난한 곳에서 부유한 곳으로 이동한다. 자발적이든 아니든, 여성을 빈곤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가난의 성차화(性差化)라 하고, 여성이주가 궁핍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임은 이주의 여성화라 할 만하다.⁸⁾

심청의 성차화된 이주는 편향적 일차원성을 띤다.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류큐(일본) 등 다양한 지리적 이동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동은 여성의 몸과 기예를 거래하는 성적 노동이라는 일차원성에 구속되며, 그녀의 몸은 후원 별당, 기루, 창가, 요정 등 게토화된 장소에 고립된다. 심청의 이주는 작가의 말처럼 ‘매춘 오디세이아’ 혹은 몸의 여행이라 할 것이다.

-
- 8) 강인한 육체노동의 필요 때문에 역사적으로 국제이주는 남성에 의해 먼저 수행되지만, 어떤 젠더가 이주하는가의 문제는 요구되는 노동유형과 관련된다. V.S.Kalra, R.Kaur and J.Hutnyk, *Diaspora & Hybridity*(SAGE, 2005), p.199. 세계화 체제를 불평등발전이라는 틀로 설명하려는 최근 논의에 의하면, 이주의 여성화는 양적 측면에서 여성이주자가 과반을 넘거나, 질적 측면에서 여성이 동반이주가 아니라 독립적 노동자로 이주할 경우를 가리킨다. 심청과 대다수 여성 인물은 후자에 가까운데, 이들의 이동이 여성의 성적 노동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심청, 연꽃의 길>은 이주의 여성화를 드러낸다고 할 만하다. 황석영이 19세기 동아시아 근대화에서 요구된 새로운 노동상품으로 임금노동과 매춘을 든 것도 이런 현상에 대한 기민한 인식이라 하겠다. 황석영, 「초판 작가의 말」, <심청, 연꽃의 길>, 700-701쪽. 이주의 여성화에 대해 이해경 외,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사회학』 40집 5호, 2006), 259-263쪽, 김경미, 「이주의 여성화와 체제전환 이후 동유럽여성의 유럽 내 이주」(『한독사회과학논총』 19권 3호, 2009.09.), 64-66쪽, 황정미,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페미니즘연구』 9권 2호, 2009), 4-5, 11-16쪽 참조.

심청이 수행하는 몸의 일차원적 이동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그것은 남성중심의 제도와 자본이 구획해놓은 경로를 벗어날 수 없다. 중국 상선에서 상징적 죽음을 경험한 이후 심청의 이동경로에는 생의 분기점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녀의 행로는 난징의 거부 첸대인의 보신용 시첩이라는 봉건적 관습에 제약될 뿐 아니라, 특히 서양 상선으로 표상된 근대적 폭력의 제물로 예정된다. 예를 들어 진장으로 가는 선상에서 심청은 서양 상선의 선수에 새겨진 “여신의 상체”(31)를 목격하는데, 그 여신상은 여성과 남성의 권력관계에 대한 비유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처녀지의 정복을 암시하는 그 여신상은 미지의 땅을 여성화하며, 여성화된 땅의 원주민 여성에 대한 남성 식민자의 지배적 관계를 함축하기 때문이다.⁹⁾ 또한 세계시장의 재편성이 비서구 지역 혹은 아시아를 편입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엄청나게 큰”(31) 서양 상선은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배관계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청, 연꽃의 길>의 매춘 오디세이아는 제국주의의 성차화된 오디세이아에 대응함을 알겠다.

둘째, 심청의 일차원적 이주는 선형적으로 전개되는 시간의 불가역성, 즉 현실의 역사적 변화에 종속된다. 첸대인의 사후 심청은 “세상은 모든 시간의 차이로 빚어진 것”이며, 따라서 “이미 떠난 세상”의 “청이로 돌아갈 수는 없”(68)다고 깨닫는다. 이런 의미에서, 심청의 공간이주는 삶에 질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시간이동이며, 그녀는 근대를 직면한다고 하겠다.¹⁰⁾

9) 선수의 여성상이나 여성 이름으로 된 선명은 미지의 세계를 여성화한다. 성차화된 여행에서 세계는 남성의 탐색을 위해 펼쳐진, 여성화된 공간으로 여겨진다. A. McClintock, *Imperial Leather*(Routledge, 1995), pp.23-24.

10) 패러디를 주목한 류보선은 심청전의 무시간적 공간에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이라는 시간성을 부여한 데 <심청, 연꽃의 길>의 특별함이 있다고 지적한다. 류보선, 같은 글, 674쪽.

그네는 어느 곳이든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던 지난 여정을 생각했다. 그것은 어제 또는 그제와 같이 이제는 자취도 없어져버린 꿈처럼 느껴졌다.(…중략…) 새로운 땅을 향하여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564-565)

다시는 돌아갈 수 없으므로, 떠나온 뿌리보다 흘러가는 경로와 도착할 거주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심청에겐 어디에서 왔는가보다 지금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 즉 ‘지옥’의 “물구덩이 불구덩이”(215, 635)이라고 여겨지는 지금 여기에서의 생존이 관건인 셈이다.

셋째, 이동과정에서 심청은 지나간 시간 혹은 과거의 정신적 외상에 집착하기보다 자기 앞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적응한다. <심청, 연꽃의 길>은 심청에게 민족공동체와 결합하거나 연대할 계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작품 초두 중국 상선에서 만난 이서방과 마테오라는 조선 선부를 제외하고, 심청은 동족집단과 조우하지 않는다. 작품의 일부 장면을 제외하고, 심청은 조선어를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문화적 소수자로서의 박탈감이나 억압의 경험 없이, 그녀는 낯선 문물과 사회적 변동에 놀라울 정도로 쉽게 적응한다. 그래서 몸의 여행에서 심청은 귀환을 공언하지 않는다. 심지어 고향 “그곳이 어디인지 그네는 벌써 까마득하게 잊어버렸”(397)다고 서술된다. 그녀에게 고향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돌아가야 할 이상향이 아니다.¹¹⁾ “목숨 가진 모든 것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것(651)이라고 말하거니와, 심청에게 민족관념이나 소속은 의문스러운 범주로 여겨지는

11) ‘이산(diaspora)’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한 장소로부터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다른 민족과 신앙, 문화 사이에서 소수자로 살고 있는 종족적(ethnic), 민족적(national), 종교적 공동체를 가리킨다. S.Dufoix, *Diaspora*(Univ.of California Press, 2008), pp.1-2. 이산의 고전적 모델에 따르면, 이산유민은 과거의 트라우마, 모국이라는 자본에 의존한다. 그 트라우마는 세대 전승되며, 이런 공유하는 전통을 통해 이상화된 고국으로의 귀환이 각인된다는 것이다. A.Prabhu, *Hybridity: Limits, Transformations, Prospects*(State Univ.of New York Press, 2007), pp.5-10. 심청을 이런 의미의 이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듯하다.

듯하다.¹²⁾

이상과 같은 근거에서, 심청의 오디세이아는 고전시대의 조타수처럼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일 수 없다. 특정 장소를 향한 일차원적 이주로 인해 그녀의 생각과 감정, 행위는 일의적으로 규정된다. 비유적으로 말해 장기판의 말처럼 그녀의 이동은 남성, 자본, 근대에 의해 코드화된 것이다.¹³⁾

이런 사정은 “세상에 벌어진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관계”(112), 즉 세상을 지배하는 남성권력을 정확하게 인식한 심청이 권력을 ‘유혹’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자본을 활용할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심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체자본을 활용하는데, 그 하나는 타고난 미색의 가치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키우와 씨아란에게 배우는 방중술이다. 특히 후자의 전략에서 심청은 거짓 교성을 내지르고, 오르가즘을 흉내내는 몸기술을 활용한다. 이러한 ‘시늉’(247)은 여성의 성에 대한 남성의 정형화, 즉 여성의 쾌락은 바기나적 쾌락이고 이는 성기를 통한 교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상투형을 흉내 낸 것이다.¹⁴⁾ 달리 말하면, 심청의

12) “그렇게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줄 몰랐었다”(664)는 양녀 기리의 말처럼, 심청의 고향회귀는 뜬금없다. 심청의 귀향은 원점회귀라는, 고전적 서사구조가 지닌 구조적 편향성 덕분이다. <심청, 연꽃의 길> 마지막 12장 <미소>는 이런 구조적 완결성에 정확하게 부응한다. 일종의 후일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심청, 연꽃의 길>은 비유적으로 고전소설의 구조적 표절이다. 그 구조는 작가 황석영의 창조적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청이 흘러온 지역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싶어 심청의 임종을 회미한 웃음으로 끝냈다고 진술한 것처럼, 황석영의 구조적 표절 혹은 심청의 귀향은 이들에 대한 작가의 립서비스일 터이다. 그러나 심청이 인식한 현실의 역사적 변형을 무시한다면, 전통소설의 구조적 완결성은 형식을 물신화할 수 있다. 황국명, 「동아시아 소설론의 논리와 실제」, 같은 책, 70-99쪽.

13) 단 한 점으로 판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바둑과 달리, 장기의 말들은 분배된 공간만을 움직이도록 코드화된다. 그래서 들뢰즈는 바둑과 장기를 각각 탈영토화하는 유목민과 영토화하는 국가장치에 대한 비유로 사용한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김재인 역, 새물결, 2003), 673-675쪽.

14) 여성의 성에 대한 남성의 상투적 인식은 실제 경험이라기보다 선험적 가설이라

시늉은 여성이 성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이 다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러니까 심청은 실제로 느끼지 않는 것, 즉 실제로 갖지 않은 것을 가진 체하면서 이성애적 상대로서의 젠더를 흉내(gender mimicry)낸다고 하겠다.¹⁵⁾ 심청의 젠더 흉내는 자신의 몸과 성감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여성권력을 암시하지만, 그러나 그녀의 생존전략이 남성경제로부터의 탈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심청의 생존은 남성권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2) 인종전략과 수평가족

세계시장 재편성 과정의 새로운 노동형태로 매춘을 주목한 것은 작가 황석영의 날카로운 역사인식이라 할 만하다. 가난의 희생양이 된 매춘여성들은 영육 해체와 육체의 사물화라는 과정을 밟았을 것이고, 이는 심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용왕제를 통해 상징적 죽음을 경험하고 새 이름 ‘렌화’가 주어졌을 때, 심청은 “나는 누구냐?”(11) 혹은 “너는 누

고 여겨진다. 흔히 남성은 성적 극치감에 남녀 간의 성기접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클리토리스적 성이 암시하듯 그것은 경험적 사실이 아니다. J.Gallop, *Thinking Through the Body*(Columbia Univ.Press, 1988), pp.73-74.

- 15) 이리가레이에 의하면,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여성은 사회적 가면으로서 여성성을 흉내낸다. 예를 들어, 성적 차별이 극심한 환경에서 권력이 없는 여성은 이성애를 연기하며, 이런 연극적 수행은 여성 특유의 생존전략이다. A.McClintock, 같은 책, pp.62-65. <심청, 연꽃의 길>에서 여성의 성에 대한 남성해석이나 남성욕망이 일방적으로 승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성애적 역할을 수행하는 심청의 내면목소리와 남성을 굽어보는 눈길(246,248)은 남성의 관음증적 시선에 대한 매춘 여성의 불길한 응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미 바바에 의하면, 불길한 눈의 응시는 성적 차별을 고착하려는 관음증적 욕망에 대항하며 대상이 지닌 타자성을 드러낸다.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나병철 역, 소명출판, 2002), 108, 118-119쪽. 이런 의미에서 심청은 희생양일 수도 없다고 이해된다. 창녀의 응시는 남성적 욕망 위에 퍼부어진 심청의 저주라는 것이다. 서영채, 「창녀 심청과 세 개의 진혼제」 『문학동네』 38호, 2004년 봄호, 187쪽. 그러나 <심청, 연꽃의 길> 전체에서 매춘 여성의 응시가 남성의 시선과 서사 전체를 통제 장악하는가는 의문이다.

구냐”(41)고 자문한다.

칭이는 거울에 비친 낯선 여자의 모습을 물끄러미 건너다보았다. (…중략…) 칭이는 처음 렌화를 만났을 때처럼 낯선 이국의 이름을 읊조려 보았다. 로터스…… 넌 이제 칭이도 렌화도 아니야. 거울 속에서 로터스가 입을 벌리며 푸후후 웃고 있다.(351)

거울 속의 렌화 혹은 로터스는 남성의 욕망이 투사되는 대상이다. ‘렌화’라는 기표가 물목에 붙인 이름인 것처럼, 심청은 타자성을 상실한 채 남성의 시선에 노출된 사회적 구성물이 된다. 그런데 “너는 내가 아니”(42)라는 부정이 매우 선택적임을 주목할 만하다. 사회적 구성물로서 렌화, 로터스, 렌카로 변화하는 이름은 민족성 혹은 문화적 종족성(ethnicity)을 확인할 수 있는 기표이다. 심청은 손님들에게 자신을 렌화, 렌카로 소개하면서도 ‘로터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독백형태로 사용되는데, 이때 초점은 서양식 명명을 조롱하는 데 있다.

로터스…… 하고 거기서 부르던 자기 이름을 되뇌어보면 무슨 알록달록한 새나 괴상하게 생긴 동물의 명칭처럼 우스꽝스럽게 들렸다.(422)

서양식 이름에 대한 선택적 부정은 심청이 이동과정에서 바꾸게 되는 다양한 의복에도 적용된다. 조선옷과 중국옷, 양장과 기모노 등은 남녀 이항대립에 근거한 성차경계를 드러낼 뿐 아니라, 종족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시적 표지이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중국 옷을 입으면 천한 사람으로 취급”(349)되는 것처럼, 의복은 인종을 차별하는 문화적 표지로 여겨진다. 따라서 접시에 담아 먹는 음식과 빵에 넌더리(365)를 내고, 제임스와 결별하면서 양장을 벗어두고 나오는 것은 동양과 서양 사이의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강조한 것이다.

청이는 방에 들어가서 가방 하나에 짐을 쌌다. 그네는 서양 옷을 벗어서 잘 개어두거나 옷장에 걸었다. (…중략…) 그네는 처음에 배에 탈 때 받았던 작은 숙녀용 목걸이 시계를 개어놓은 양장 위에 놓고 신부에 게서 받은 십자의 형상도 놓았다. 그네는 이 세계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벗어나려는 것처럼 보였다.(407)

그녀가 탈주하려는 ‘이 세계’는 서구, 백인, 근대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일 것이다. 그런데 심청이 지향하는 세계가 불투명하고 보면,¹⁶⁾ ‘나’는 누구인가라는 심청의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심청, 연꽃의 길>에서 선택적 부정은 근대 서양의 백인을 ‘그들’로 묶고, 이에 대한 대립항으로 동아시아의 조선, 중국, 류큐(일본)를 ‘우리’로 동질화하는 인종전략이다.¹⁷⁾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나’에 대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심청은 근대적 주체에 미달한다. 심청의 자기분열이 ‘우리’로 봉합되고, 그 결과 그녀는 실존의 의미가 놓일 사적 영역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라는 동질화의 전략은 심청으로 하여금 사인성(私人性) 대신 출생과 무관한 집단과 협력하고 수평적으로 연대하게 만든다. 그래서 <심청, 연꽃의 길>은 수직적인 혈통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결연관계를 전통가족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듯하다. 수평가족은 피의 동질성이 아니라 주변부 인간이 겪는 박탈, 억눌림, 고통의 경험에 근거한다. 그래서 심청이 상부인을 ‘엄마’라 부르듯, 기리는 심청을 엄마라 부른다. 심청은 링링의 아이 유자오의 엄마가 되고, 유메이 언니에게 ‘혈육’이라는 느낌

16) 마이판 허푸와의 대화에서 심청이 “그전 세상이 훨씬 좋”(406)다고 할 때, ‘그전 세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허푸의 응답을 고려할 때, 그전 세상은 또 다른 근대가 아니라 근대 이전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녀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

17) 이는 우리(서양인)와 그들(동양인)을 분리하는 오리엔탈리즘의 적대적 인식을 같은 방식으로 반전시킨 형태일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박홍규 역, 교보문고, 1991), 84쪽.

(422)을 받는다. 류큐의 요정 용궁에서 렌카, 후미코, 로쿠, 유자오는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이라는 편협한 혈통주의를 넘어 “한 가족이 되었다”(436)고 할 때, 이들은 수평가족 즉 자연적 아비나 엄마가 없는 가족이다.¹⁸⁾

다른 한편, 고아나 혼혈아의 유기가 모성을 부정하는, 모권에 대한 남성중심주의의 억압을 환기한다면, 수평가족은 이런 억압에 대한 맞섬이라 할 수 있다. 남성중심주의는 누가 아이의 아버지인가에 대한 강박을 드러내는데, 이는 지식주체로서의 모권을 부정하는 일이다. 남성들의 강박은 임신 출산에 있어 그들의 기여도가 불확실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의 정절이나 산도(産道)의 청결에 대한 집착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상부인의 말처럼, “여자는 애 아버지가 누군지 저절로 안”(310)다. 정인을 염두에 둔 발언이긴 하지만, 아비가 누구인지 여성만이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달리 말하면, 여성이 지식주체라는 것, 아이는 여성(엄마)의 아이라는 뜻이다.¹⁹⁾ 모든 아이는 여성(엄마)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확장된 것이 수평가족이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심청, 연꽃의 길>에서 모성은 어머니의 인습적 역할을 초과하는 가변적 다원적 범주라고 하겠다.

18) A.McClintock, 같은책, pp.317-319. 수평가족(horizontal family)은 수직적 유전적 가족 결속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공통의 기억, 유사한 의복과 음식, 윤리적 정서적 특징 등에 의해 형성된다. W.W.Walters, “Defiance and Reconciliation in Paul Celan’s *Die Niemandsrose*”, E.Barkan and Marie-Denis Shelton(eds.), *Borders, Exiles, Diasporas*(Stanford Univ.Press, 1998), pp.228-229.

19) 가야트리 스피박, 『교육기계 안의 바깥에서』(태혜숙 역, 갈무리, 2006), 146-147쪽. 대신에 남성은 말에 의한 특권적 기능을 부여받는다. 자식에 대한 명명도 그런 특권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라캉이 지적한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규정된 역할은 어머니가 인정할 때만 존재한다. 아니카 르메르, 『자크 라캉』(이미션 역, 문예출판사, 1994 3쇄), 136-138쪽.

3. 동아시아 연대와 혼종의 레시피

1) 성차권력의 내면화와 동아시아 본질주의

자신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 ‘우리’라는 집단적 동질화에 이르지만, 심청의 물음이 자신의 온몸을 “태어나서 처음” 본 사실에서 비롯됨은 주목할 만하다.

(…중략…)아, 그래 내가 원래 청이었지……

심청은 멀뚱히 렌화를 바라보다 허리띠를 풀고 비단 홑옷을 벗어 발 아래 떨구었다. 그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남의 것처럼 바라보았다.(42)

거울을 통해 자신의 성기도 보았을 터이므로, 서양거울은 이제 몸의 은폐된 마지막 신비까지 제거한다. 그렇다면, 남성의 욕망이 투사되는 대상이긴 하지만, 심청은 타자, 혹은 서양거울이라는 근대적 장치에 의해 자신의 생물학적 실체를 발견한 셈이다.

이는 주체와 타자, 동아시아와 서양 사이의 불가피한 협력관계를 암시한다. 심청 자신이 예라이상으로 존경하는 상부인이나 웬지부인조차 “창기들에게 양인 첩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큰 기회”(344-345)라고 할 때, 양인 첩은 서양제국주의 질서와 공생관계에 놓일 수 있다.²⁰⁾ 싱가포르의 양행상점에 “거의 모든 세상 물건이 모여 있는 곳 같”(382)다면, 주체는 자신이 만들지 않은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매춘여성들이 서양배의 소독수와 한방 세척제를 혼용(268)하는 것처럼, 심청은 타이완의 동료들에게 서양 아기옷, 양산, 서양식 머리핀과 빗을 보내고, 양인 첩은 “동거하는 남자들을 흉내”낸 티타임(382)을 갖지 않겠는가.²¹⁾

20) 사이드는 원주민과 제국주의 사이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지시한 바 있다. 에드워드 W. 사이드, 『문화와 제국주의』(박홍규 역, 2007 3쇄), 502-504쪽.

21) 헤게모니에 저항적인 민중과 그 지도자도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소비체계에 참

이런 공생관계를 비난하기는 쉽지만, 그런 비난은 서양제국주의에 대한 동양 남성의 경험을 동양 여성에게 강제할 수 있다. “내 자신이 고를 거”(400)라는 남편감으로 제임스가 아니라 중국인 동유나 류큐 사족 가즈토시가 선택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인종차별에 관한 아래의 진술도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런 창피해서가 아니랍니다.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린 여자라 그러려니 하지만 남자들에겐 더해요.”

아마는 신이 나서 말했다.

“서양 여자들 들판에서 크리켓 공놀이하다가 오줌 마려우면 주위에 누가 없나 둘러보지요. 백인 남자는 없고 하인들만 있으면 서슴없이 궁둥이 까고 풀밭에 오줌을 누지요. 그건 강아지 앞에서 아무 일이나 하는 거와 같잖아.”(375)

위 인용은 백인남성이 동양여성과 함께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가라고 묻는 심청에게 하녀 아마가 대답한 것이다. 동양인 하녀와 하인을 짐승처럼 취급한다는 점에서, 백인여성의 노상방뇨는 인종적 계급적 차별을 드러낸다. 그런데 백인여성과 유색인 첩은 동성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백인여성의 행위는 유색남성에 대해 더 심한 성적 인종적 계급적 차별이라는 것이다. 즉 유색하인은 하녀와 다를 바 없는 지위지만,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보다 훨씬 더 굴욕을 느낄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문화적으로 고착된 성적 불평등, 남녀 간의 성차서열을 내면화한 것과 다르지 않다. 성차권력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의 인종차별에 직면할 때 동족 남성에 대한 동아시아여성

여하고 기본 욕구를 충족한다. 심지어 헤게모니적 질서에 저항할 경우에도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과학적 전통적 의료수단을 결합하는 것처럼, 서발턴은 착취에 대해 공격하기보다 상황에 적응하며 중재적 해결을 추구한다고 지적된다. N.G.Canclini, *Hybrid Cultures: Strategies for Entering and Leaving Modernity*(Univ.of Minnesota Press, 2001), pp.259-260.

의 불평등한 관계를 묵인하게 된다는 것이 <심청, 연꽃의 길>이 지닌 한계이다.

동아시아 각국의 관계사와 차이를 서둘러 봉합한 인종전략처럼, 이런 성적 서열의 내면화는 동아시아 남녀가 서구 제국주의의 침탈을 같은 방식으로 경험한다고 가정함과 같다. 그러나 가정은 가정일 뿐이므로, 그 가정이 본질주의적 동질화로부터 자유롭다 할 수 없다.²²⁾ 심청이 귀향한 개항 인천에서 동아시아의 여러 지계가 “서로 별 말썽 없이 부지런히 먹고들 살았다”(665)고 한 것처럼, 동아시아 내부의 차이가 말소된 특정 역사를 창안함으로써 동아시아 연대 혹은 동아시아 근본주의는 엄존했던 불평등의 역사를 지워버릴 수도 있다.

2) 언어의 서열과 문화의 복화술

심청은 중국어, 영어, 류큐(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능력을 소유한다. 여러 곳을 거쳐오면서 “남의 말을 배우는 데 익숙”(453)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녀의 언어능력은 동족집단과 조우함이 없이 낯선 문물과 격변하는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심청의 언어능력이 동아시아의 사회변동과 연관되는 것처럼, ‘피진 잉글리시’도 상이한 문화의 만남에서 결과한 언어적 혼종이라고 하겠다.²³⁾

22) 황석영은 자신의 ‘전망’을 ‘동아시아주의’라고 단언한 바 있다. 「서스펜스 중독에서 장바닥 일상으로」(『신동아』 인터뷰, 2003, 2월1일, 521호) 참조. 스피박의 견해를 끌어와 황석영의 전망을 전략적 본질주의로 해석한 선행연구도 있지만, 그 전략의 정치적 기획이 무엇인지, 황석영이 근본주의 자체를 회의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스피박에게 본질주의는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끊임없는 착제대상이다. 다만, 박탈의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본질론은 전략적 용도로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바트 무어-길버트,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이경원 역, 한길사, 2003), 216-217쪽.

23) 피진 잉글리시는 통상이나 무역 등에 임시변통으로 사용된 것이다. 피진(pidgin)은 business에서 와전된 말로 여겨지며, 1660년대 중국 광동에 최초로 세워진 공장에서 외국인 주인과 중국인 하인 사이에 처음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Hong, Yun-Sook, “About Pidgin Languages”(『논문집』 4집, 한양대, 1971),

그런데 <심청, 연꽃의 길>에서 피진 잉글리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싱가포르에서 대면한 제임스와 심청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 아마가 피진 잉글리시로 양자를 매개하는 장면은 아래와 같다.

아마가 원주민식 영어인 피진 잉글리시로 제임스에게 말했다.
 “그 여자 이름 로터스. 집 좋다고 말했다.”
 제임스는 거실에서 곧장 식당으로 들어가며 외쳤다.
 “아 배고파, 찹찹을 다오.”
 아마가 고개를 흔들며 손가락까지 세워서 흔들어 보였다.
 “당신 세수하고, 옷 바꾸고 와라, 찹찹 없다.”
 제임스가 두 손을 높이 들어 보였다.
 “알았소. 손 씻고 옷 갈아입고 먹도록 하지.”(361)

아마의 피진 잉글리시를 “원주민식 영어”라 한 것처럼, 마이판의 영어도 “서투른 피진 잉글리시”(339)이며, 서양배의 통사도 “피진 잉글리시를 배운 서투른 통사”(532)라고 지적된다. 그렇다면 피진 잉글리시는 무엇을 기준으로 영어이고, 누구의 관점에서 서투른 영어인가? 중국인 통사나 마이판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내부자라면 자신의 영어를 영어티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습득한 영어로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니 어찌 진지하지 않겠는가. 표준영어를 기준으로 다른 세계의 외부자 관점에서 볼 때, 피진 잉글리시는 영어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피진 잉글리시를 영어티라 함은 국외자인 백인 영어사용자의 시각에 근거한 것이다. 그 근거에서 볼 때, 피진 잉글리시는 표준영어의 불완전한 모방(흉내)에 불과하다. 아마의 피진 잉글리시를 흉내 냄으로써 희극적 효과가 유발되는 것처럼,²⁴⁾ 제임스의 재모방은 표준영어의 관점

pp.127-137. 피진 잉글리시는 모국어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중심부의 언어인 영어를 주변부 국가의 모국어의 영향력 안에 유치시키는 전유 행위와 연관시켜 볼 만하다. 빌 애쉬크로프트 외,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이석호 역, 민음사, 1996), 65-76쪽.

에서 피진 잉글리시 사용자를 타자화하는 인종차별이다.²⁵⁾ 따라서 동아시아 연대를 모색하는 작가의 의도와 달리, ‘एंतेरी’ 피진 잉글리시와 표준영어 사이의 언어적 서열에 제국의 시선이 은밀하게 작동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그런 서열은 피진 잉글리시를एं테री 모조품으로 여기는 식민제국주의자의 생각을 복화술로 말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피진 잉글리시를 사용하는 통사나 마이판은 문화형식들 사이의 브로커라 할 수 있다. 기어츠의 지적처럼, 통역에 참가할 힘과 수단을 가진 이들 브로커가 공정한 중립을 지킨다고 보기 어렵다.²⁶⁾ <심청, 연꽃의 길>은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피진 잉글리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피진 잉글리시 하는 항구एंतेरी 통역들보다 말을 훨씬 잘”하는 것이 “유리한 점”(396,398)이라는 양인 첩이나, 제임스의 가르침 덕분에 아마보다 자신이 제임스와 더 말이 잘 통한다는 심청(370)의 경우도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남편 가르토시의 저택에 초대된 프랑스 손님 일행에게 심청이 능숙한 영어와 중국어로 응대하는 것은 파농이 지적한 것처럼, 언어능력에 따라 인간됨됨이가 평가된다는 점을 그녀가 기민하게 알아차린 결과라 할 것이다.²⁷⁾ 이후 손님과의 대화를 중국어로 진행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서구언어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24) 파농에 의하면, 이처럼 백인 스스로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흑인을 아이 대하듯 놀리는 것이다. 표준영어 사용자가 놀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한다면, 바로 그런 의도의 부재, 즉 무관심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프란츠 파농,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석호 역, 인간사랑, 2003 2쇄), 40-41쪽.

25) 동양인에 대한 상투적 이미지와 함께 피진 잉글리시에 대한 표준영어 사용자의 편하는 인종주의적 왜곡을 수반한다. Sheng-Mei Ma, *The Deathly Embrace* (Univ.of Minnesota Press, 2000), pp.11-15,47,69,120. 탈식민주의에 관한 한 번역서에서 한국어 번역자는 피진 잉글리시에 대해 “상거래에 사용되는एंतेरी 영어”라고 역자 주석을 붙였다. 존 맥클라우드, 『탈식민주의 길잡이』(박종성 외 역, 도서출판 한울, 2009 초판 2쇄), 149쪽.

26) 완벽한 번역은 불가능하며, 번역자는 문화의 복화술사라 할 수 있다. V.S.Kalra, R.Kaur and J.Hutnyk, 같은 책, p.76.

27) 프란츠 파농, 같은책, 24-25, 27-28쪽.

않지만, 언어의 주체구성력을 고려할 때 심청의 다양한 언어 습득은 자신을 창조하지 않은 언어를 선택한 것과 같다. 앞서 심청이 근대적 주체에 미달한다고 지적하였거니와, 그녀는 자신에게 속하는 언어, 혹은 자신이 속하는 언어란 무엇인가를 고심하지 않는다. 이처럼 심청에게 모국어에 대한 자의식이 결여됨은 서구제국주의에 대응하려는 작가의 동아시아 근본주의와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²⁸⁾

3) 인종낙인과 혼종의 서열

피진 잉글리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혼종현상에 대한 평가와 내적 연관을 맺는다. 고아와 혼혈아를 위한 보호소를 설립하면서, 심청은 제임스에게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이건 당신네가 해야 할 일”(391)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당신네’의 기의는 남성, 백인, 서양일 것이다. 포주 아

28) 황석영은 작가란 모국어에 의해 조국의 삶과 연결되며(인터뷰 「분단시대의 ‘통일작가’ 황석영」, 사회평론 1991년 10월호, 144쪽), 르플레지오의 말을 빌려 “작가의 조국은 모국어”(심진경·황석영 대담, 같은 글, 245쪽)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황석영은 자신이 ‘강간당한 문화’라고 규정한 라틴아메리카 문학이 스페인 말 즉 침략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말하자면, “강간당한 자가 상대방의 언어를 통해서 고통을 들려”주는 것을 주목하고, 우리 문학도 “분단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 세계적 보편의 언어로 전달,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석영의 삶과 문학」, 최원식·임홍배 편, 『황석영의 문학세계』(창비, 2003), 23쪽. 「서스펜스 중독에서 장바닥 일상으로」 참조. 이 문맥을 라틴아메리카 문학이 스페인어를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문학이 고민해야 할 “세계적 보편의 언어”란 제국주의적 권력언어인 영어를 가리키지 않겠는가. <심청>을 출판한 직후 한 신문과 가진 인터뷰(「심청 통해 동아시아 근대사 재현」, 『문화일보』, 2003.11.25)에서 2년 정도 영국대학에서 공부하며 자신의 문학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수준의 영어 실력을 쌓을 계획이라 한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됨직하다. 그러나 제국의 언어로 얼마나 효과적인 제국 비판이 가능한가 물을 수 있다. 또 침탈당한 사람이 그 느낌을 가해자에게 말하기 위해 가해자의 언어를 사용하게 함은 범죄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J.N.Fink, “Conclusion. Pushing through the Surface: Notes on hybridity and Writing”, M.Joseph and J.N.Fink(eds.), *Performing Hybridity*(Univ.of Minnesota Press, 1999), p.249.

통이 외국 “선원의 씨”(236)였던 것처럼, 혼혈은 백인 남성의 씨뿌리기, 즉 백인의 이주와 식민화라는 고통스런 역사와 연관됨을 강조한 셈이다.²⁹⁾ 혼혈은 평화로운 만남이 아니라 제국주의 침탈과 연루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통을 두고 “양인 신부처럼 생겨먹었”지만 “서양인과 꼭 같지는 않”은 ‘이상한 물골’이라 한 것처럼(216-217), 혼혈은 부정적 사회 현상으로 이해된다. 기아보호소 설립을 위해 심청이가 마치부교를 접견한 자리에서, 그가 “기아(棄兒)와 혼혈아 문제로 속을 썩은 것”(627)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함은 혼혈아를 사회의 문제아로 인식함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혼혈은 제국주의 침탈의 희생자임이 분명하지만, 사회 문제가 되는 부정적 결과라는 뜻이다.

사실 ‘혼혈아’도 그러하거니와, <심청, 연꽃의 길>에서 함께 사용된 ‘튀기’, ‘짜중(雜種)’, ‘아이노코’ 등도 근본주의적 사고를 반영하는 인종차별적 용어이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회문제를 지시하는 이들 용어는 무수한 논자들이 지적하듯이, 그 이면에 인종적 이항대립에 부합하는 순수성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 동양인과와 그들 서양인 사이엔 인종적으로 배타적인 경계가 있고, 양자의 만남은 경계의 일탈이며, 그 결과 피의 잡종이 생겼다는 논리이다. 이런 논리 하에서 혼혈은 순수한 기원의 오염이며 병적 현상으로 여겨진다. 혼혈아에 대한 깊은 연민에도 불구하고, <심청, 연꽃의 길>이 이런 논리에서 벗어났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러나 <심청, 연꽃의 길>에서 모든 혼혈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렌카야의 쇼코는 상하이 대선주 탕의 아이를 낳은 적이 있다. 당시는 개항 전이라 부교소에 출생신고와 거주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당

29) diaspora는 그리스어 전치사 dia(너머로)와 동사 sperio(씨뿌리기)에서 파생되었다. 이를 인간사회에 적용하여, 고대 그리스인은 디아스포라를 이주(migration)와 식민화(colonization)로 여겼다. R.Cohen, *Global Diaspora*(Univ.of Washington Press, 1997), pp.1-2.

인 혼혈은 서양인 혼혈에 비해서는 수월한 편”(618)이었다. 이런 수월성은 백인 혼혈에 비해 당인 혼혈이 비가시적이기 때문이다. 양인 혼혈인 기리의 모습을 두고 “코가 오뚝하고 흰 피부에 머리카락은 다행히 검정색”(601)이라 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을 것이다. 그 다행함은 멜라닌 함량과 관련된 인종차별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피부색이나 골상은 신분, 특권, 기회와 관련된 인종낙인의 기표이며, 당인 혼혈은 백인 혼혈보다 인종적으로 유리하다는 뜻이다.

이로 볼 때, <심청, 연꽃의 길>은 특정한 혼종 레시피에 관용적이며, 이는 이른바 동아시아 연대론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가즈토시는 “수야오와 류카는 특징이 서로 다르지만 산신을 반주로 하니까 마치 사촌지간 같”다(450)고 말한다. 유타 여인의 굿은 류큐어와 조선어라는 언어적 차이를 뛰어넘는다. 렌카야의 로쿠 노인의 말처럼 중국음식과 일본음식이 ‘섞여서’ 우치나 요리가 되듯이(441-442), 동아시아 각국의 인종적 문화적 차이는 공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혼종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서양인을 흉내 내는 중국인은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양복 차림으로 “서양 사람처럼”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중국인 마이판 허푸에 대해 특별히 비판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은 반백의 머리를 짧게 깎고 서양 복장을 입었을 뿐 중국 사람인 듯했고 한 사람만이 진짜 서양 사람이었다.”(340-341)고 할 때, 서양인 흉내를 내는 허푸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사실이 강조된다. 아통처럼 서양인과 거의 비슷하지만 아주 꼭 같지는 않다는 혼종의 양가성이나 지배자의 언어와 문화를 흉내 낸 것을 두고 호미 바바는 항복이 아니라 저항의 수단이라 여기지만,³⁰⁾ <심청, 연꽃의 길>에서 혼종성 혹은 백인이 되고 싶은 시

30) 호미 바바에게 모방의 양가성, 혼종성(hybridity)은 식민지 권위를 전유, 흉내냄으로써 그 권위를 훼손하는 전복적 저항으로 이해되지만, 그의 이론은 문화혼합의 불균등, 물질적 불평등에 둔감하다고 비판된다. 호미 바바, 같은 책, 177-191쪽. 피터 차일즈, 패트릭 윌리엄스, 『탈식민주의 이론』(김문환 역, 문예출판사,

쓰 자크의 ‘거만’한 인종행세(372)는 프란츠 파농식으로 말해, 검은 피부의 하얀 가면으로 비판된다. 달리 말해, 서양문화와의 혼종은 서양에 대한 동양의 예속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작가의 인식임이 분명하다. 동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탈은 이런 인식의 근거가 되지만, 그런 배타적 인식이 세계체제에 대한 문명적 대안에 이를 것이라는 뒷받침은 크게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동양과 서양의 이항대립을 강화할수록, 동양문화에 대한 서양문화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할수록 서양은 보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³¹⁾

4.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황석영의 <심청, 연꽃의 길>을 중심으로 여성이주의 특성, 인종과 혼종 인식의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그 대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심청, 연꽃의 길>은 여성이 가난의 대속자가 되는, 이주의 여성화를 주목한다. 성차화된 이주의 특성 때문에 심청의 이동은 성적 노동에 포획된 일차원성을 띤다. 장기관의 말처럼 심청의 이주는 남성, 자본, 근대에 의해 코드화된 경로를 따르며, 그녀는 고향을 반드시 돌아가

2004), 293-301쪽. 바트 무어-길버트, 같은 책, 303-346쪽. 특히 인종적 타자의 정형화 담론의 옳고 그름보다 그 정형이 얼마나 발화자의 의지를 담는가, 현실 구성에서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따지고, 어느 편에도 담론독점권이 없다고 주장한 점에서 바바의 이론은 텍스트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정교한 분석은 이석구, 「전유의 틈새: 호미 바바의 식민주체와 그 문제점」(『안과 밖』, 2000년 상반기 8호), 222-231, 241-246쪽.

31) 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심청, 연꽃의 길>에서 시간과 계약이 서구의 박래품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구미의 결정적 존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저자가 서양 편에서 동양사를 바라보는 입장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근거라고 평가된다. 미야지마 히로시, 「황석영의 <심청>과 19세기 동아시아」(『역사비평』, 2004 여름호), 128-130쪽.

야 할 이상향으로 열망하지 않는다. 젠더 시늉이라는 생존전략도 남성경제의 구획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둘째, 이름, 의복, 음식 등에 대한 심청의 선택적 부정은 동서양의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강조한다. 선택적 부정은 동아시아와 서양을 ‘우리’와 ‘그들’로 대립시키는 인종전략이며, 이 전략은 심청으로 하여금 출생과 무관한 집단과 연대하고 수평가족을 구성하게 만든다. <심청, 연꽃의 길>에서 수평가족은 어머니의 인습적 역할을 넘어선 모성애를 드러낸다.

셋째, 일상적 삶에서 동아시아와 서양의 불가피한 공생관계가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심청, 연꽃의 길>은 동아시아 남녀간의 성차서열을 내면화함으로써 그들이 서구 제국주의의 침탈을 같은 방식으로 경험한다고 가정하며, 이 가정은 동아시아 근본주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넷째, 심청의 다언어능력은 동족집단이 조우하지 않고 낯선 문화에 적응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심청, 연꽃의 길>에서 낯선 문물과의 만남 결과인 ‘피진 잉글리시’는 ‘엥터리’로 인식되며, 이런 부정적 인식은 언어적 서열을 강제하는 제국주의 시선과 내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

다섯째, 언어적 혼종에 대한 부정처럼, 혼혈은 사회문제가 되는 부정적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동아시아인혼혈이라는 특정한 혼종에 관용적임을 볼 때, <심청, 연꽃의 길>은 서양문화와의 혼종이 동아시아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함이 분명하다. 이런 배타적 인식이 세계체제에 대한 문명적 대안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참고문헌

1. 자료

<심청, 연꽃의 길>(문학동네, 2007 2판1쇄)

「초판 작가의 말」, <심청, 연꽃의 길>

「황석영이 황석영을 말하다」(『작가세계』 제60호, 2004)

대담 「분단시대의 ‘통일작가’황석영」(『사회평론』 1991년 10월호)

대담 「서스펜스 중독에서 장바닥 일상으로」(『신동아』 인터뷰, 2003, 2월 1일, 521호)

대담 「황석영의 삶과 문학」, 최원식·임홍배 편, 『황석영의 문학세계』
(창작과비평사, 2003)

대담 「심청 통해 동아시아 근대사 재현」(『문화일보』, 2003.11.25)

대담 「한국문학은 살아 있다」(『창작과비평』 137호, 2007년 가을호)

대담 「분쟁과 대립을 넘어 21세기의 생명수를 찾아서」, <바리테기>(창
작과비평사, 2007/2009 초판 41쇄)

2. 참고논저

가야트리 스피박, 『교육기계 안의 바깥에서』(태혜숙 역, 갈무리, 2006),
146-147쪽.

고인환,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전통 양식 전용 양상 연구」(『한민족문화
연구』 26집, 2008), 188쪽.

구수경, 「<심청전>의 창조적 변형과 구원의 서사」(『한국문학이론과 비
평』 39집, 12권 2호, 2008), 226-231쪽.

김경미, 「이주의 여성화와 체제전환 이후 동유럽여성의 유럽 내 이주」
(『한독사회과학논총』 19권 3호, 2009.09.), 64-66쪽.

김경수, 「우리 소설의 확장방식에 대하여」(『동서문학』 252호, 2004년 봄

호), 352-354쪽.

김미영,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9집, 9권 4호, 2005), 429-430쪽.

류보선, 「모성의 시간, 혹은 모더니티의 거울」, <심청, 연꽃의 길> 해설, 674, 685-690쪽.

문재원, 「황석영 <심청>의 근대성과 탈근대성」(『한국문학논총』 43집, 2006.08), 365-366쪽.

미야지마 히로시, 「황석영의 <심청>과 19세기 동아시아」(『역사비평』, 2004 여름호), 128-130쪽.

바트 무어-길버트,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이경원 역, 한길사, 2003), 216-217, 303-346쪽.

박성창, 「문학·국경·세계화」(『세계의 문학』 127호, 2008년 봄호), 332-333쪽.

박숙자, 「여성의 몸을 탐하는 남성의 서사」(『여성과 사회』 16집, 2005), 223-224쪽.

빌 애쉬크로프트 외,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이석호 역, 민음사, 1996), 65-76쪽.

서영채, 「창녀 심청과 세 개의 진혼제」(『문학동네』 38호, 2004년 봄호), 187쪽.

심진경, 「새로운 거짓말과 진부한 거짓말」(『실천문학』, 2006년 겨울호), 150-151쪽.

아니카 르메르, 『자크 라캉』(이미션 역, 문예출판사, 1994 3쇄), 136-138쪽.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박홍규 역, 교보문고, 1991), 84쪽.

에드워드 W. 사이드, 『문화와 제국주의』(박홍규 역, 2007 3쇄), 502-504쪽.

이석구, 「전유의 틈새: 호미 바바의 식민주체와 그 문제점」(『안과밖』,

- 2000년 상반기 8호), 222-231, 241-246쪽.
- 이혜경 외,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집 5호, 2006), 259-263쪽.
- 임기현, 『황석영 소설의 탈식민성』(역락, 2010), 302-305, 397-398쪽.
- 정문순, 「포주의 시선에 포획된 여성의 몸」(『비평과 전망』 8호, 2004년 봄호), 299-314쪽.
- 정혜경, 「여성수난사 이야기와 탈(脫)국경의 상상력」(『문학수첩』, 2007년 여름호), 63-64쪽.
- 존 맥클라우드, 『탈식민주의 길잡이』(박종성 외 역, 도서출판 한울, 2009 초판 2쇄), 149쪽.
-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김재인 역, 새물결, 2003), 673-675쪽.
- 최영석, 「강신(降神)과 축귀(逐鬼)—동아시아론의 서사화」(『작가세계』, 2004년 봄호), 84-85쪽.
- 프란츠 파농,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석호 역, 인간사랑, 2003 2쇄), 24-25, 27-28, 40-41쪽.
- 피터 차일즈, 패트릭 윌리엄스, 『탈식민주의 이론』(김문환 역, 문예출판사, 2004), 293-301쪽.
- 호비 바바, 『문화의 위치』(나병철 역, 소명출판, 2002), 108, 118-119, 177-191쪽.
- 황국명, 「동아시아 소설론의 논리와 실제」, 『우리 소설론의 터무니』(세종출판사, 2005), 70-99쪽.
- 황국명, 「황석영 소설은 리얼리즘의 미래인가—<손님>론」, 『우리 소설론의 터무니』(세종출판사, 2005), 291-313쪽.
- 황정미,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페미니즘연구』 9권 2호, 2009), 4-5, 11-16쪽.
- R.Cohen, *Global Diaspora*(Univ.of Washington Press, 1997), pp.1-2.

- S.Dufoix, *Diaspora*(Univ.of California Press, 2008), pp.1-2.
- A.McClintock, *Imperial Leather*(Routledge, 1995), pp.23-24, 62-65, 317-319.
- A.Prabhu, *Hybridity: Limits, Transformations, Prospects*(State Univ. of New York Press, 2007), pp.5-10.
- Hong, Yun-Sook, "About Pidgin Languages"(『논문집』 4집, 한양대, 1971), pp.127-137.
- J.Gallop, *Thinking Through the Body*(Columbia Univ. Press, 1988), pp.73-74.
- J.N.Fink, "Conclusion. Pushing through the Surface: Notes on hybridity and Writing", M.Joseph and J.N.Fink(eds.), *Performing Hybridity*(Univ.of Minnesota Press, 1999), p.249.
- N.G.Canclini, *Hybrid Cultures: Strategies for Entering and Leaving Modernity*(Univ.of Minnesota Press, 2001), pp.259-260.
- Sheng-Mei Ma, *The Deathly Embrace*(Univ.of Minnesota Press, 2000), pp.11-15, 47, 69, 120.
- V.S.Kalra, R.Kaur and J.Hutnyk, *Diaspora & Hybridity*(SAGE, 2005), pp.76, 199.
- W.W.Walters, "Defiance and Reconciliation in Paul Celan's Die Niemandrose", E.Barkan and Marie-Denis Shelton(eds.), *Borders, Exiles, Diasporas*(Standford Univ.Press, 1998), pp.228-229.

<Abstract>

A Study on the Recognitions of Female
Migrant and Hybridity in Hwang
Seok-young's 『Simchung, the road of lotus』

Hwang, Koog-Myoung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migrant and the recognitions of race and hybridity in Hwang Seok-young's 『Simchung, the road of a lotu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Due to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Simchung's displacement is appeared to be the one-dimension captured by sexual work, and Simchung is not eager to return to home.

Simchung's optional negative toward name, clothes, and food is a race strategy which distinguishes Eastern Asia as 'we' and the West as 'they'.

In the context of this race strategy, 『Simchung, the road of a lotus』 postulates that the East Asian men and women experience the exploits of Western imperialism in the same way, and this postulation is based on Eastern essentialism.

Regarding this issue, Pidgin English is perceived to be wrong, and this negative perception can be internally related to the imperial gaze that forces the linguistic hierarchy.

Although this novel is exclusive to the hybridity with the Western

culture and tolerant toward East Asian hybridity,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such position would be a civilizational alternative to the global system.

Key Words : eastern essentialism, ventriloquism, horizontal family, linguistic hierarchy, feminization of migration, race strategy, gender mimicry, hybridity

■ 논문접수 : 2011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1년 8월 5일

■ 게재확정 : 2011년 8월 10일